

‘일상의 나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해요

‘행복나눔도! 복지충북!’ 1호로 ‘충북도청’ 지정, 나눔 릴레이 시작!

4월 23일(수),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 이하 협의회)가 충북도민의 일상적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행복나눔도! 복지충북! 나눔 릴레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부담없이 쉽게 참여하는 생활형 기부 모델로서 매월 1회 나눔 행사에 참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서 3천원 미만의 지정된 식품 생필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청을 1호로 지정하고 나눔 릴레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도청 직원들은 출근길에 라면, 휴지 등의 식품 생필품을 기

부하여 나눔을 실천했다. 당일 기부된 물품은 충북 도내 푸드뱅크를 통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동중인 좋은이웃봉사단원과 지역 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나눔행사가 진행됐다. 협의회는 매월 나눔 릴레이에 참여할 기업 및 단체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나눔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다양한 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작은 나눔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나눔 릴레이 행사에 충북도청이 1호로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이러한 나눔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창기 회장은 기존의 기부에 대한 의미가 특별한 상황에서 일정한 기부를 하는 의미였다면 이번 행사는 일상적 상황에서 일상생활용품이나 더

나눔지는 의미로 시작된 행사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충북형 사회공헌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정부, 민간 중심 나눔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의 비전으로 현장중심/민관협력 나눔문화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자원봉사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신뢰와 소통으로 복지거버넌스를 꿈꾸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의 혁신전략



이 상 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의 사무총장

충청북도의 사회복지계는 복지거버넌스를 이루어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 이하 협의회)가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을 통감하면서 신뢰와 배려, 공유,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협의회가 창립된 지 19년만의 변화이다. 협의회 소속 전 직원들은 지역사회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고 신뢰와 소통을 통한 책임있는 변화와 혁신에 돌입하였다.

새로이 수립한 미션은 충북도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다. 복지서비스의 증복과 누락을 방지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존재이유라고 생각한 것이다. 비전 역시 최적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복지모델의 표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기획안(strategy planning)도 마련하였다.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협의회 의 혁신전략을 다루어 본다.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기본이다.

새로운 변화의 시도는 스스로의 성장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협의회는 지역사회활동은 소통과 공유, 협력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변화의 시도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사업들은 원점에서 검토되었다. 또한 직접서비스는 모두 중지되었다. 대신 시군사회복지협의회와의 공동사업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였다.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직원들을 사무실 밖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게 최우선의 목표이다. 밖으로 나가서 사회복지현장의 기관들과 만나고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도입

하고 있다. 연대와 협력의 출발은 단남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포럼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들은 시군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가급적 다양한 직능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공공영역과의 협력도 중요한 한 축이므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조례나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한다. 효와 복지를 접목하기 위하여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는가 하면, 도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으로 협의회가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의 대표기관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적어도 민과 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대변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때문에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동하는 복지연합 및 직능단체들과 공동으로 복지체제를 발굴하고 공약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사회협화와 공동주관으로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실시하는 것도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클릭 한 번으로 고급 사회복지정보가 우르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편집위원들이 충북사회복지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계의 뜻을 담아내고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이 원하는 생생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북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촘촘살인의 필체로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언론기관에서 주필을 역임해 온 본 협의회 김춘길 이사를 편집위원 겸 주필로 위촉하고 충북사회복지신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생한 정보 제공은 두 가지 영역에서 제공한다. 그 중 하나는 중앙부처와 복지재단, 각종 지원기관, 사회공헌 기업 등의 공모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 기관들의 근황을 소

설한다. 사회공헌본부에서는 이외에도 기업 사회공헌 컨설팅, 정보제공, 나눔축제 등의 사회공헌 허브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거버넌스를 통해 희망을 만들자

누군가 우문현답을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라고 풀이하였다. 참으로 의미있는 해석이다. 협의회는 현장과의 신뢰와 소통으로 복지거버넌스를 이루어내야 한다. 기존의 관주도적 행정으로는 현장의 문제점과 니즈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복지제도의 실행 절차를 개선하며, 영역별 복지현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설적인 협의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충북 복지환경의 전향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충북복지거버넌스이다.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충북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전제된다. 협의회는 책임있는 변화와 혁신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일상적 나눔문화의 확산 일상을 기부하라

협회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을 기부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행복나눔도! 복지충북!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시민이 일상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것 하나를 나누는 의미에서 한 달에 한번 행복나눔데이를 지정하고 치약 치솔 세트, 라면 한 봉지, 물 화장지 등 소소한 물건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물품들은 푸드뱅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전달된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본부도 신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일상의 나눔 · 평생의 나눔 · 신뢰의 나눔



행복나눔도! 복지충북! 나눔 릴레이는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익캠페인입니다.

- ☀ 참여대상 : 충북도민, 기업
- ☀ 참여방법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로 나누어 주세요.
- ☀ 나눔물품 : 3천원 미만의 식품 및 생활용품이 필요해요.
- ☀ 나눔문의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234~0840~2

♥ 한달에 한번 행복나눔데이에 물품을 기부해주세요! ♥

 생활용품 휴지, 비누	 공산품 라면, 즉석식품	 식품품 계란, 통조림
 위생용품 치약, 칫솔	 목욕용품 샴푸, 샤워겔	 세탁용품 세제

“골목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어요”

청주 서원초 근교 골목

지역아동복지금이 출범

청주 서부종합복지관에서는 4월 11일(금) 복대2동에 위치한 서원초등학교 근교 골목에서 지역아동복지금이 협의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지역 및 아동 관련 유관기관인 복대2동 주민센터, 복대2동 봉장협의회, 복대2동 남 여 자율방범대, 서원초등학교, 백양지역 아동센터, 어개동우지역아동센터, 비라클지역아동센터, 청주시니어클럽이 함께 참여했다.

발대식에 이어 툇기타 음악공연, 아이들과 함께하는 벽화그리기, 안전한 먹거리(라피자, 올리브, 행복카페-커피)와 아이들의 추억의 놀이(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무줄 놀이, 딱지치기 등)로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며 소통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약 15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지역주민은 골목에서 축제를 하는 처음인 것 같은데 재미있었고, 골목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써야겠다고



서원초교 골목에서 아이들이 딱지놀이로 즐기고 있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 라고 밝혔으며, 참여한 아이는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놀이를 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총 6번의 골목축제가 진행될 계획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자리로서,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건전한 골목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형성하고 활성화해가자 한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진다.

저소득 청소년·어르신에 웃음 선사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

청소년 꿈지원 장학금 전달식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 충북지구(이광우부총재) 1,2,3지역(청주, 청원) 회원 20여명은 4월 16일(수) 청주시 용암동에 위치한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들을 위한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와 청소년 꿈지원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장영진 관장) 용암주공아파트 단지내 어르신 150여명 대상

으로 점심식사와 과일 등을 대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 공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능 있는 청소년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꿈지원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잠재적 재능을 향상시키고 꿈을 이루고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부총재 이광우, 박용건을 비롯해 지대위원장, 최충진, 유인옥, 장흥렬, 박해성, 김해용, 반준환 등 지구임원이 참석했고,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백성종 관장,지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랑의 점심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석한 라이온스 충북지구 이광우 부총재는 어르신들께서 우리가 준비한 마음보다 더 크고 맛있게 드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길 좋다고 말하며 라이온스 충북지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 충북지구 1,2,3 지역(청주, 청원)은 이렇게 매년 청주, 청원내 외로운 독거 어르신 찾아가 식사대접은 물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장장난감 무료로 고쳐드려요”

청원 장난감대여센터 외글와글 장난감병원 개소

청원군 장난감대여센터가 지난 2일 목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글와글 장난감병원 개소식을 갖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날 문을 연 장난감병원은 장난감 대여 후 고장이나 훼손된 곳을 수리하고 세척해 장기 이용과 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장난감병원에는 접수대, 진료대, 장난감보관함, 수리물품보관소, 소독기(5단계 세척), 기저귀 교체대,

장난감 택배(포장)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또 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 노인을 장난감의사로 임명하는 등 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도 넓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난감병원 오픈으로 질 높은 대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을 깨끗이 관리해 영유아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원군 장난감대여센터는 1695명의 회원들에게 보유 중인 장난감 990점 중 매월 850여점을 대여해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 원예치료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병세)은 음성군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4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반 사회통합반 이용자 10명이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하를정원 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 및 사회성 향상,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진행한다

하를정원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 3층 옥상에서 상자텃밭 만들

기, 모종과 이주시키기, 텃밭작물 재배법, 수확 관리법등을 배운다고 한다.

이번 하를정원 담당자는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며 지적장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 이고 훈련생과 자원봉사자만의 텃밭이름을 정하여 상자텃밭에 이름을 붙이고 매일 상자텃밭의 채소가 자라나는지 확인하는 훈련생들의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함을 느꼈으면 합니다라며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지원비용 지원해 주신 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밝혔다.

‘은퇴! 자신을 찾아가는 2막’ 프로그램 개강

청주가경노인복지관 12일부터 총 25회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강신욱)에서는 사회에서 은퇴한 만 55세 이상 남녀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25회기에 걸쳐 은퇴! 자신을 찾아가는 2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은퇴! 자신을 찾아가는 2막 프로그램은 은퇴 후 성공적 노화 및 제3기 인생설계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수용 및 관계설계, 여기설계, 내면설계, 경제설계, 희망설계의 영역으로 나뉘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청주시평생학습관 우수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 은퇴한 어르신의 제3기 인생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가경노인복지관(043-236-0111)에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어르신 정보화 교육

청주내덕노인복지관이 지난 3월 10일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집합 정보화교육 강좌를 마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컴퓨터 활용 교육은 충북도청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12월 30일 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컴퓨터 활용이 어려웠던 지역 어르신

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권오경 어르신(73세)은 컴퓨터 작동이 쉽지 않았고 민하던 차에 복지관에서 교육을 마련해주고 감사함이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주어서 매우 고맙고 즐겁다. 며 흐뭇해 했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학생외국어교육원 노인 영어 의사소통·교육력 향상 MOU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심의보)과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은 4월 14일 월요일 11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본 협약은 어르신 영어체험 과정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기관 간사인력 공유와 협력이 주요

내용이 협약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어르신 모임을 통한 교육 진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심의보 관장은 실버세대 실용 영어 문화의 향유를 위한 수준높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의 장이 일반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충장북 사랑나눔 도서 지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가정형편이 열악한 재가장애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도서 및 학습용품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유도, 성장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토록 하고자 희망나눔서비스를 실시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범석) 친원분관에서는 지역 내 도시업체인명서팀 친원을 소재의 후원으로 2014년 5월 2일(목) 재가장애인 자녀 10명에게 충장북 희망나눔서비스를 통해 도서 및 학습물품을 제공했다.

한편, 명서팀 대표는 이번 도서 지원 나눔행사를 통해 후원자(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층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기부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권 최고의 로펌 청추로! 7명의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CJ LAW 공중인가 법무법인 **청추로** CHEONGJU LAW

청주의 법률섬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추로 옮깁니다.

대표변호사 유재풍 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박종일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 변호사 명지성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7층(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 043-290-4000(대표전화) F.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 공증 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복지진단

가족친화 정책과 경영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제정의 여왕 5월의 달력은 행사들로 가득 차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필두로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입양날, 18일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 19일은 발명의 날이자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22일은 가정위탁의 날, 25일은 실종아동의 날 등

5월은 특히 가족과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이다. 특히 5월 15일 많은 사람이 스승의 날 로만 기억하지만,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가정의 날은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UN)총회에서 변화하는 현대 세계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매년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가정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화되었다.

고사성이 중에 가정이 화목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을 소홀히 하다 보면 일도, 가정도 제대로 챙길 수 없다는 얘기도 흔하다.

프랑스로 이민 간 한국인이 매일 혼자 야근을 했다고 한다. 프랑스인 팀장은 무슨 짓이냐며 다그쳤고, 한국인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한다. 덕분에 당신 성과도 좋아질 것 아니냐

그런데 팀장이 크게 꾸짖었다. 당신은 오랜 세월 우리가 힘겹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화를 망치고 있다. 당신을 의식한 누군가가 저녁이 있는 맛있는 삶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을 포기하게 하지 마라 고 했다고 한다.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에 달한다. OECD국가 평균인 1,764시간보다 492시간이 많다. 과중한 근로의 결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남성의 경우 하루 1시간 2분, 여성은 하루 3시간 52분으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일에 매여 있는 셈이다. 사람 온 땀으로 밀려나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도 이

러한 근로문화와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은 직장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가족친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가족친화정책이란 기업과 정부가 법과 제도, 프로그램,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남녀 근로자가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이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가족친화정책은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에 준하는 조화로운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고, 직인과 그 가족의 행복도를 높여줌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저출산 및 고령화문제를 해결해 주는 효과가 있다.

워킹맘을 위해 사내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시로 가족들을 회사로 초청해 유대를 쌓아가거나 CEO(최고경영자)들이 직원들의 가정 구성원들에게 손편지를 쓰는 등 경조사를 챙기는 곳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내진검에 회사일을 잊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정시점에 의무적으로 재충전을 위한 리프메시 휴가를 보내는 곳도 적지 않다.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평소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독려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가족의 행복한 삶이 직장생활의 가장 강력한 동기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가정의 날 바쁜 업무로 부족해질 수 있는 가족과의 대화시간을 회복시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안정을 바탕으로 회사생활의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의 날을 시행하는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복지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정책 · 예산 배분 잘해야 성 평등 실현 빨라져

우리나라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좀 더 성평등한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담당자 워크숍.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념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은 2013년 현재 OECD회원국 34개국 중 33위로 남녀 간 격차가 큰 나라에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 제도는 무엇인가요?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근거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어떻게 도입되었나? 국내에서는 여성단체의 예산운동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2002년부터 여성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성인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제정된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동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왜 필요한가요? 예산은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이

성인지 예산 늘려 제3의 분야에 중립적 지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등 대책 수립하는게 중요

독거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중점관리 등 성별영향평가 노력후 노인 자살예방 감소효과

며, 예산의 분배구조는 사회경제적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다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사회로부터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성별평등 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 차별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 지원 예산이 감소되면 여성의 무급돌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가 제한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별로 무관해 보이는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분석함으로써 예산의 배분 구조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예산을 동등하게 나누기 위함인가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50:50으로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공공지출을 전 더관점에서 분석하여 예산이 기존의 성별평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 자원이 평등한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됨

(2011.2.1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와 시군은 2012년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은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정책 개선 사례

임산부 여성 배려 주차장 당진군 보건소는 임산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및 여성 배려 주차장 5면을 설치했습니다. 임산부 배려 주차장은 주차 편의와 3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 시 편리하도록 일반 주차장보다 주차면적을 넓혔습니다. 서울 국립극장에도 여성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가는 화장실 가족이 외출을 하는 경우 돌보는 역할을 부부가 함께 하는데, 여성 화장실에만 아기를 위한 변기 및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빠와 동행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난 후에는 보건소 체육문화회관 등의 남자화장실에서 대기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유아를 동반한 부부가 자녀를 함께 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성 독거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생활관리사 추가 파견 각 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독거노인들에게 적절한 보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기 위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남자 독거노인의 경우 오히려 노후에는 사회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200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십만명당 자살인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난 후, 남성 독거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46명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노인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인 남성 중심의 지하철 손잡이 개선 지하철 손잡이는 성인남성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높이(약 167cm)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나 노인, 남성들보다 평균 신장이 작은 여성들은 손잡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어왔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난 후,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8호선 각 1편(8량)의 객차마다 기존 167cm보다 10cm 낮은 위치에 손잡이 16개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지하철 9호선 객차에는 지하철 손잡이가 남성용(179cm)과 여성용(163

cm)으로 번갈아 설치되었습니다.

4.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하는 일

충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12년 9월 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충북 여성발전센터에서 위탁운영중이며, 충북도 및 교육청, 시군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컨설팅지원, 다양한 연구조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충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도내 14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각종 사업 및 자치법규,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 워크숍을 개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 되는 해로 충청북도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의 성인지역량 향상교육 및 분석평가방법 훈련, 전문 컨설턴트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 성인지통계를 생산하고 제도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심층 분석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전 더 전문가, 공무원,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되고 충북도민의 정책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기대합니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성폭력특별수사대 :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담반) 아동 · 장애인, 중요 학교폭력, 중요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충북지방경찰청내에 마련된 성폭력 전문수사팀 피해자 조사 및 의료지원을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반(충북원스톱지원센터)과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담당하는 단속반으로 구성 · 운영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지원내용

- 여자경찰관 전문상담사가 24시간 근무하며 피해사례 접수시 상담 및 영장진출녹화(심리전문가 참여)를 통한 피해자 조사
- 청주의료원과 연계하여 피해자 응급치료 및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피해자 의료지원 (성폭력 응급 키트) 실시
- 기타 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법률지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곳곳에서 은밀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 · 장애인 성폭력범죄!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합니다.

이젠 아동·장애인 전문수사팀인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알려주세요!

신고 전화 주간 : 043) 240-2647(성폭력 특별수사대) 학교폭력 : 117 야간 : 043) 272-7117(원스톱지원센터) H · P : 010-4778-3155

총서협 正論

6.4 지방선거, 잘 보고 잘 선택하자



김충길 편집고문 겸 주필

다음 달 치러지는 6.4지방선거에서 충북 유권자들은 어떤 인물들을 선택해야 할까. 이는 충북도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안목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음에 다름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선거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정치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때, 충북의 지방자치수준도 충북도민의 정치수준과 비례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내 유권자들은 그 수준에 맞는 인물을 선출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이 기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면 우선 그 장본인을 성토하기 전에 그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자책(自責)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지연 학연 혈연 관연 등에 얽매어 표표를 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투표에 임박해서는 우리가 남인가! 하는 연고의식에 휩쓸려 신성한 한 표 주권을 행사했던 타성에서 올 해 만큼은 벗어나야 한다. 잘못 투표했다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선 충북도지사 선출 문제를 보자.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인 이시종 지사와 윤진식 새누리당 예비후보 간에 결판날 것이 분명한 충북지사 선출은 후 후보의 경력이나 역량 등이 난립난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행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별성이 엿보인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사회복지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충북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내 시군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직능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성안한 복지공약 7대 공약 및 그 영역별 77대 공약 등의 실행에 의욕적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도지사 4년 임기 중에 충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식의 과장포부를 밝히는 후보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위기상황과 재난 등의 발생 시 강력한 리더십과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참사 수습 과정에서 표출된 중앙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무능력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충북 도지사는 위기대처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

다. 이 점은 시장군수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다음으로, 충북교육감 선출 문제에 있어서는 예비후보들의 자격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 배제해야 할 후보와 공약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 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 차기 교육감은 공짜 선심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경계해야 한다.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현장에 학력을 신장시키면서 학생들의 바른 성품과 정 의 예 절 창조 정신 사 랑 등을 교육하는데 절대적인 지원자가 되고 교육복지 실현 등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교육감을 해보겠다는 후보가 선심성 정치공약이나 공짜심리 등을 앞산하고 있다면 그런 후보는 마땅히 충북 보충교육계 수장(首長)으로서의 설 땅이 마련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된다.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출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 시 군 의 총괄행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냉철한 인물 감별이 요구되고 있다. 시종일관 주민들의 진실한 머슴이 되어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가면서 신장공직자들의 기강을 단호하게 확립,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관내 국회의원에 명종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꾼을 뽑아서는 안 될 것이다. 도의회의원이나 시군의회의원은 주민들과 늘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민의를 대변, 정적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소속 정당의 골격대가 되어 사건건 집행부를 불합리하게 압박하면서 자기책임성 활동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농후한 후보는 아예 충북 지방의회 무대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기피성 영역이 밀집하거나 파렴치범 전과자 등도 철저히 외면돼야 할 것이다.

체·심·수·기

봉사하는 삶으로



최병호 다사랑봉사단

군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막상 가방 끈이 짧아 취직이 되지 않고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데 1964년 선거철이 되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군에서 제대하여 대통령이 되어 있었다. 내가 군 생활할 때 5.16혁명에 일어나 얼굴은 분적이 없지만 존경하는 지도자가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장사가 사할 길에 접어들어 끝내고 대한생명 보험회사를 들어갔으나 무진이라는 금융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보험도 안 되고 심년 되던 해 강원도에서 청주로 내려와 1974년 청주대학교에 들어가 근무하다 정년 퇴임을 하고 농가가 심심해 친구의 소개로 충북대학교에 들어가 용역경비로 들어가 심년을 근무하였다. 안식주교 분식장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같이 충북대 청소 용역으로 들어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며 근무하다가 당뇨가 와서 음식조절을 해야 하는데 심해져 집에서 치료받으며 지내다 시간 나면 돌아 손잡고 두 시간씩 걷기운동도 하며 지내다 결국엔 병원신세를 지고 3년 동안 나의 간호를 받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나도 척추 장애를 갖게되어 일을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기 너무 아까워 풍물도배우고 민요도 배우며 풍물을 대상을 두 번 타고 민요도 대상을 한 번 받았다. 지금은 다사랑봉사단에 들어가 배운 것을 노인요양원이나 우암시니어클럽에서 6년째 매달 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 2013년 올해는 글쓰기 교실에 들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며 남은 인생을 불태우고 있다. 이 육신이 무너지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할 것이다.

칼럼 Column



임동현 사단법인 정경리대포

얼마 전 전인과의 약속이 있어 바쁜 발걸음을 하던 중 한 아파트 담벼락에 쓰여 있는 글귀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았다.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절로 고개가 떨구어진다. 얼마나 더 진인하고 참담한 일들이 벌어져야 정신을 차릴까! 얼마나 더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어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까. 아니 그런 날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오진 않을까? 민권 유착에 따른 부패와 비리의 북마천, 나태와 보신주의가 판치는 풍토 회의마저 느껴지고 알 수 없는

비통함과 슬픔이 밀려온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췌관드 사고, 대구 지하철 사고, 그리고 얼마 전 경주리조트 사고 21년 전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사고 이 모든 것들이 온갖 부정부패와 부실 비리로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라고 하고 벌인 것 같은 참으로 부끄러운 부패와 비리의 사슬이 낳은 관재(官災) 가장 한국적인 사고 인 것이다. 인재인가 필자는 이런 농담을 들은 적 있다. 미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직감적으로 테러인가 떠올리고, 일본에서는 지진인가 떠올리며, 한국은 부실공사인가 떠올린다는 얘기가 있다. 그냥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현실로 미루어 농담은 분명 아닌 것 같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 3국의 비교 저 농담도 이제는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 어떤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미국은 여전

히 테러를 떠올리고 일본은 지진을 떠올리는데, 한국은 건물이란 배든 비행기든 도로에서든 정소 불문하고 어떤 형태든 사고가 나면 한국인가를 떠올린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사에 유례 없는 압축 성장의 신화를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스스로의 자축에 빠져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 모두가 허구였고, 허상이라는 아니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과제와 반성의 시간을 주고 있다. 외환만 변동하게 꾸민다고 저절로 내실이 기해지는 것은 분명 아니다. 현실적인 노력, 사명감, 책임감 등이 모든 것이 뒤따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약육강식의 승자독식주의나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는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담쟁이

이제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국가와 정부에만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나누어 짊어져야 할 모두의 책무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참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잔인했던 4월 무엇 하나 해보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꽃들을 꺾어 보내야 했던 아픔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 되어 기억 되어질 것이다. 이제 5월 따스한 봄 햇살과 울긋불긋 화사한 꽃들 연둣빛 새싹들이 녹색으로 변하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생명이 넘치는 화사한 계절 어린 이날, 아버 이날, 스승의 날이 이어지는 가정의 달 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계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서 이 작은 행복한 시간마저도 앗아가 버린 것 같다. 아니 모든 게 달라고 보이다. 절망과 분노 더 나아가 자괴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꿈과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은 분명 대한민국을 다시 후진국으로 되돌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아니 어쩌면 진정한 제 자리를 찾

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절망만 하기에 저 많은 이들 앞에 너무 무책임하고 부끄럽지 않은 이 제라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진정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춧돌이 되어 새롭게 국가의 기틀을 잡아나가기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미 찢길 때로 찢긴 아니 갈기갈기 찢겨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더 헤집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피를 토하고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대한민국의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오 캠프, 마이 캠프. 모든 위협을 견디고 항해를 무사히 끝냈지만 캠프는 죽어 있다. 그래서 캠프들은 울부짖는다. 일어나라! 그대를 위한 것만이 휘날리고 그대를 위한 나팔소리가 울리고 있나니. 시인의 노래는 타이타닉의 침몰에서 현실이 됐다. 승객을 모두 대피시킨 뒤 캠프는 선교에서 최후를 맞았다. 타이타닉을 노련한 엔지니어들이 그 침몰을 전에 미친 서양문명의 멸망으로 노려했지만 그래도 승객을 구하고 장렬하게 죽은 캠프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통곡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 보인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Advertisement for 'Seominchong LPG Gas Facility Free Renovation Project' (서민층 LPG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시행). The ad features a central image of hands holding a house model, with smaller photos showing gas cylinder replacements. Text includes: 'LPG호스는 노후되거나 파손으로 사고우려가 있어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사업대상 | LPG 가스 호스설치 주택(서민층)', '사업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무료 설치', '문의처 |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and '※ 모든 LPG 가스 사용주택은 2015. 12.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미 이행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2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Logos for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and 'KGS 한국가스안전공사' are at the bottom.

지역단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한국임웨이 ABO희망나눔터 자원봉사단 지원사업 내가 만든 종이세상

북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창호)은 지난 4월 11일(금) 방과후 교실 아동 15명과 한국 임웨이 봉사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접기로 벽시계를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다. 크기가 다른 종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접은 다음에 모두 겹쳐서 동그란 모양을 만드는 활동이 진행되었고 아이들과 봉사자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모든 아동들이 자신만의 벽시계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한국임웨이 지원사업은 앞으로 12월까지 진행되며 2월부터 7월까지 종이접기 교실이 실시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북아트 교실이 진행된다. 앞으로도 수업마다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아이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뿐 아니라 멘토 역할을 하여 아동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증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추가모집

충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조보영)가 자원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추가모집에 나섰다.

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충주시에는 7일 새로 할인가맹점 신청한 파리바게트 문화점을 비롯해 88개 업소가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봉사자에게 발급해주는 사람나누기통장 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이용시, 약정 할인을 만큼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중의 하나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을 통해 가맹업소는 매출증대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신청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나 충주시자원봉사센터(850-7438)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청전동 통장협의회, 공병 모이 이웃사랑 실천

제천시 청전동 통장협의회가 뉴세마을 운동 실천 일환으로 매일 통장회의가 있는 날마다 이웃사랑 공병 모이기 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전동 53명의 통장들은 각 통별로 수집한 공병을 이날 통사무소로 가져와 일괄 매각하고 그때 얻어진 수익금으로 연말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모자 가정 등 어려운 가정의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웃사랑 공병 모이기 운동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며 지난해에도 어려운 학생 16명에게 10만원씩 총 160만원을 전달했다.

청주 주성중직접자사 희망나눔 천사학교 협약



충북 청주 주성중학교(교장 이춘순)는 8일 충북직접자사와 희망나눔 천사학교 협약을 가졌다. 희망나눔 천사학교 등록한 22명의 학생들은 매일 소액(3천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게 되며, 1년간 학생들의 기부 금액은 100만원이 넘는다.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조정 탁구 교실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원장 함근희)는 2014년 4월부터 다사랑 생활체육 조정교실 및 탁구교실 사업을 각각 시작한다.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가 주관하는 이 사업들은 충청북도,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후원으로 시행된다.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는 지난 2년간 수영, 등산, 전통무예, 승마, 불림 등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에 선정이 되어 큰 호응 속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시행되는 조정 및 탁구교실 또한 이용자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다.

조정교실은 충주시 가끔면 탐평리에 위치한 충주조정체육학교에서 실시되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조정의 기초부터 직접 수상에서 체험을 해보는 코스까지 단계별 맞춤 교육을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즐겁게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짜여 있으며, 탁구교실은 최근 새로 지어진 충주시 호암 제2체육관 탁구장에서 실시되며, 운동도구가 간편하고 실내운동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문의는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846-3305-6)로 하면 된다.

청주동부소방서 율량119안전센터 주택안전지킴이 활동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율량119안전센터는 8일 상당구 내덕동 일대에서 혼자 사는 노인 돌봄서비스 및 주택안전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율량안전센터 및 내덕동주민센터 직원 등은 재난취약 가구와 혼자 사는 노인세대를 방문, 이불세탁, 환경정화, 주거시설 개선 등을 실시했다.

보람동산 함께하는 보람동산 우리는 하나 개최



제 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람동산(이사장 권영동)은 법인 산하시설 내 장애인에 대상으로 4월 17일 ~ 4월 18일 보은 속리산(그랜드호텔)에서 함께하는 보람동산 우리는 하나 행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및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평소 힘들고 고된 업무 속에 휴식을 갖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일터가 아닌 다른곳에서 함께 어울려 즐기면서 상쾌한 봄기운까지 덤으로 선물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청주병원과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청주병원(원장 조원일)은 14년 4월 9일(수) 14:00 청주병원 회의실에서 조원일 원장 및 공단 관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무료의료서비스를 지원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원봉사자모집. 청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청원군. 1004자원봉사자 모집. Includes logo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volunteer groups.

요리교실 요리쿡! 조리쿡!! 실시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에서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상으로 요리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 기술 훈련 및 협동성, 대인관계 향상으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괴산문화아카데미 요리교실 요리쿡! 조리쿡!! 이란 주제로 실시하였다. 총24회기로 운영되는 요리교실은 심상한 재료 선별법, 양념류의 활용법, 조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으로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 및 요리도구 사용을 통하여 일상생활 능력 및 협동성을 통한 사회성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괴산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장학금 전달

보은군 대청호장학회는 7일 부군수실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12명에게 총 1천1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고등학생 5명과 대학생 7명, 고등학생에게는 60만원, 대학생은 12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전달됐다.

수혜대상자는 고등학교, 대학교 최종학년의 재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년도의 1월1일 기준으로 5년이상 회남면 전 지역과 회인면 죽암리, 신대리, 용곡1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직계비속이다.

바람. 이창신 www.bokmani.com. Includes illustrations of a yellow ribbon, a speech bubble saying '안녕', and a speech bubble saying '그만 울어. 이제 웃어도 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19평? 24평? 33평?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센터. Includes text about universal design and images of accessible furniture.